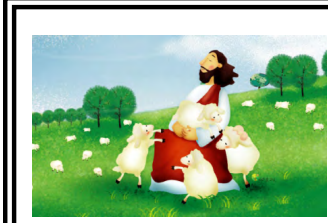


공동체 소식



연중 제16주일

주님, 주님의 종들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주님의 은총을 인자로우게 하시어, 믿음과 희망과 사랑으로, 언제나 깨어 주님의 계명을 충실히 지키게 하소서.

7월 기도지향

- 정한조, 정지연 막달레나의 가정을 위하여
- 예비자 교리를 준비하고 있는 가정들을 위하여

7월의 성인

- 7/4: 포르투갈의 성녀 엘리사벳
- 7/5: 한국 성직자들의 수호자 성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 순교자,
- 7/6: 성녀 마리아 고레티 동정 순교자
- 7/11: 성 베네딕도 아빠스
- 7/15: 서 보나벤투라 주교 학자
- 7/22: 성녀 마리아 막달레나
- 7/25: 성 야고보 사도
- 7/26: 복되신 동정 마리아의 부모 성 요아킴과 성녀 안나

7월 로렌스 공동체 미사는 없습니다.

본당 셀기도 모임에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 모임시간 : 매주 수요일 오전 10:00, 본당 나자렛관

본당 '평일미사' 에 참여하는 것은 신심생활의 근본입니다.

본당에 예비자 교리를 준비하고 있거나, 받고 있는 분들을 위하여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전례 성가

시 작	예 목	성 체	마 침
461	340	164	439

주일미사 복사

	시중 복사	항 복사
금주	문예나 요안나	문호진 안토니오
	정예찬 미카엘	고평원 프란치스코
차주	김정원 안젤라	안광민 야고보
	이원준 요한	김준영 요셉

전례 봉사자 및 독서자

	해설자	제1독서
		제2독서
금주	김명은 안젤라	김병철 베네딕도 김경희 스킴라스티카
차주	정수한 베드로	김화년 요안나 김명은 안젤라

애찬 봉사자

금주	김시연, 신혜경, 김말자
차주	문문주, 최은미, 박옥희

헌금 봉사자

금주	문문주 엘리사벳, 고영방 스테파노
차주	박희영 카타리나, 이우영 가브리엘

우리들의 정성

하느님께 드리는 헌금과 교무금에 정성을 다해투셔서 감사합니다!!!

	영성체	헌금	교무금
7/10	72명	314불	2700불
김규호, 이우석, 김정원, 임창주, 고영방, 김화연, 김호원, 정수한, 차호섭, 오명현 (총 10세대)			

미사시간
주 일: 11:00 AM
화요일: 7:30 PM
목요일: 10:00 AM

고해성사
매 미사 30분전

예비자교리
주일 10:00 AM

천주교 캔사스 한인성당

Korean Catholic Community of Kansas
9130 Pflumm Rd. Lenexa, KS 66215
(913)563-7896 www.kckcatholic.org
주보 편집 : 박동희 만나 660.853.9984 flyanna@gmail.com

주임신부 **홍 진 베드로**
M: 913.912.2574 hongjhin@daum.net

회 장 **홍순익 마르티노**
M: 913.486.4204

부 회 장 **김태중 예레미아**
M: 913.963.7521

재 무 **차호섭 요셉**
M: 614.598.7908 hscha72@gmail.com

오늘의 전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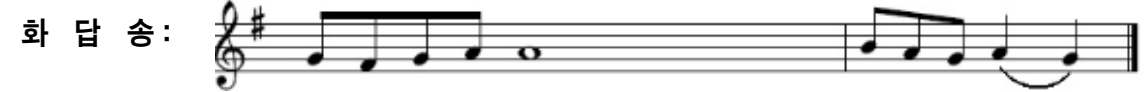


오늘은 연중 제16주일이며 농민 주일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나그네를 대접하는 집입니다. 교회는 누구나 자유롭게 드나드는 환대의 집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가난한 형제들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이고 섬기고 있습니까? 이 시대의 가난한 이들이 주님의 발치에서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시중드는 일은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입니다.

그림묵상

그때에 예수님께서 또 다른 비유를 들어 군중에게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자기 밭에 좋은 씨를 뿌리는 사람에 비길 수 있다. 사람들이 자는 동안에 그의 원수가 와서 밭 가운데에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다. 줄기가 나서 열매를 맺을 때에 가라지들도 드러났다. 그래서 종들이 집주인에게 가서, ‘주인님,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가라지는 어디서 생겼습니까?’ 하고 묻자, ‘원수가 그렇게 하였구나.’ 하고 집주인이 말하였다. 종들이 ‘그러면 저희가 가서 그것들을 거두어 낼까요?’ 하고 묻자, 그는 이렇게 일렀다. ‘아니다. 너희가 가라지들을 거두어 내다가 밭까지 함께 뽑을지도 모른다. 수확 때까지 둘 다 함께 자라도록 내버려 두어라. 수확 때에 내가 일꾼들에게, 먼저 가라지를 거두어서 단으로 묶어 태워버리고 밭은 내 곳간으로 모아들이라고 하겠다.’” (마태 13,24-30)

제 1 독서 : 창세기의 말씀입니다. 18,1-10
< 나리, 부디 이 종을 그냥 지나치지 마십시오. >



- 화 답 송 :
- ◎ 주님, 당신의 천막에 누가 머물리이까?
 - 흠 없이 걸어가고 의로운 일을 하며, 마음속 진실을 말하는 이, 함부로 혀를 놀리지 않는 이라네. ◎
 - 친구를 해치지 않으며, 이웃을 모욕하지 않는 이라네. 그는 악인을 업신여기지만, 주님을 경외하는 이들은 존중한다네. ◎
 - 이자를 받으려 돈놀이 않으며, 죄 없는 이를 해치는 뇌물 받지 않는다네. 이 모든 것 행하는 그 사람, 영원토록 흔들림 없으리라. ◎

제 2 독서 : 사도 바오로의 콜로새서 말씀입니다. 1,24-28
< 과거의 모든 시대에 감추어져 있던 신비가 이제는 성도들에게 명백히 드러났습니다. >

복음환호송 : ◎ 알렐루야.
○ 바르고 착한 마음으로 하느님 말씀을 간직하여 인내로 열매를 맺는 사람들은 행복하여라! ◎

복 음 :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10,38-42
< 마르타는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셔 들였다. 마리아는 좋은 몫을 선택하였다. >



“좋은 몫을 택한 마리아” (루카 10,38-42)

루카 복음사가가 전하는 마르타와 마리아 이야기를 읽다 보면 종종 이런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마르타는 열심히 일하고, 마리아는 앉아서 놓고만 있었는데 왜 마르타만 야단맞을까?

아마도 개미와 베짖이 이야기에 익숙하기에 이런 질문이 나오는 듯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독자들이 등장인물 가운데 누구를 옳게 생각해야 하는지 알려줍니다. 대개 이야기 흐름을 통해서 누가 옳은지가 드러나기도 하지만 하느님이나 예수님이 직접 알려주시기도 합니다. 오늘 복음의 경우에는 예수님께서 마르타가 너무 많은 일을 염려하고 걱정한다고 말씀하시며, 마리아가 진정 좋은 몫을 선택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바탕으로 오늘 복음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마르타의 문제가 분명히 드러납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을 집에 모신 인물은 마리아가 아니라 마르타입니다. 성경에서 주님을 맞아들여 그분께 가까이 다가가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은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마르타는 주님을 초대만 해 놓고서 가까이 다가가 그분의 말씀을 듣는데 집중하지 않고, 온갖 시종드는 일에 “분주”합니다. 분주하다는 표현은 마르타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음을 암시해 줍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주님의 발치에 앉아 그분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성경적 관점에서 볼 때 가장 중요한 일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1독서의 아브라함도 마르타처럼 주님을 맞아들인 뒤 주님과 그분 천사들의 시종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마르타와 달리 아브라함은 주님 곁에 머물며, 주님께 시종을 듭니다. 그리고 그분 말씀에 귀 기울이며 공손히 답합니다. 1독서에서 주님께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인물은 자기 천막 안에서 나오지 않던 사라였습니다.

성경의 관심에서 벗어나 개인적 관점에서 ‘말씀만 들

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마리아가 정말 잘한 것일까?’라는 질문을 던질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개인적 의문으로 복음의 초점을 흐려 놓아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복음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개미 마르타와 베짖이 마리아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과 가까운 자리에 머물며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하다는 가르침입니다.

이와 관련해 루카 8,15는 “바르고 착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간직하여 인내로써 열매를 맺는다”고 말합니다. 주님 곁에서 그분의 말씀을 제대로 듣고 간직하는 이들은 인내로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실제 복음사가는 주님의 말씀을 듣다가 마르타의 비난을 받은 마리아가 실제 말씀을 들은 뒤 어떤 행동을 하였는지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복음사가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마리아가 좋은 몫, 곧 주님의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며, 간직한 인물임을 밝혀줍니다. 복음사가 말하지는 않지만 마리아는 분명 말씀을 간직한 뒤 인내로 열매를 맺게 되었을 것입니다. 마르타처럼 자신의 관심 때문에 분주한 삶을 살지 않고, 주님의 말씀에 따라 살았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우리 모두는 오늘 제2독서의 바오로 말처럼 주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그 말씀을 선포하는 교회의 일꾼들입니다. 그래서 매일 같이 주님께 가까이 다가가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과 더불어 ‘삶이라는 각자의 제단’ 위에서 하느님과 이웃들을 위해 봉사하며 살아갑니다. 이런 우리들이지만 종종 자신의 근심 걱정 때문에 갖가지 일에 부산을 떨 때가 많습니다. 하느님의 뜻을 찾기보다 자신의 생각이나 계획에 빠져 분주할 때가 많습니다. 이런 우리들에게 주님께서는 오늘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무 많은 일을 염려하고 걱정하며, 갖가지 일로 분주구나. 그러나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다. 하느님 말씀을 간직하여 인내로 그 열매를 맺는 것. 마리아는 참으로 좋은 몫을 택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 마지막까지 함께한 사람들

하느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던 예수님은 죄인들의 손에 넘어가 처참하게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오랜 시간 십자가 위에서 고통을 당하시던 예수님은 오후 세시에 큰 소리로 부르짖으시고는 숨을 거두셨습니다. “저의 하느님, 저의 하느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셨습니까?” 예수님의 죽음을 애타게 지켜봤던 군중들은 가슴을 치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현장에서 예수님이 죽어 가는 모습을 지켜보던 백인대장은 무엇이라 말했나요?

성경을 찾아 읽어 보세요! 마르 15,33-39

예수님은 자신이 믿는 하느님에게마저 버림받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예수님을 존경하고 따르던 제자들도 예수님을 두고 줄행랑을 쳤습니다. 사도들의 대표인 베드로는 이전에 예수님께 호언장담하였던 적이 있습니다. “비록 모든 사람이 주님을 버릴지라도 저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죽는 한이 있더라도 결코 주님을 모른다고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게 행동했나요?

성경을 찾아 읽어 보세요! 마태 26,31-35;69-75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마지막 순간까지 따랐던 사람들은 아주 극소수였습니다. 그들은 의연하고 충실한 모습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십자가 곁에서 마지막까지 자리를 지킨 사람들은 누구인가요?

성경을 찾아 읽어 보세요! 마태 27,55-56 / 요한 19,25-27

예수님의 수난 여정에 마지막까지 함께한 여성들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해줍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직분이나 능력, 위치 등의 세속적인 위계질서의 사고에 젖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와는 전혀 다른 방식인 가치의 서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인들은 예수님의 임종 순간, 무덤에 안치할 때도 함께 했고, 안식일 다음 날 향료를 가지고 무덤을 찾기도 했습니다. 그녀들에게는 어떤 인간적인 이해타산이나 계산이 없었고, 순수함과 희생심과 사랑의 마음만이 있었습니다. 큰 책임을 맡은 사도들은 모두 도망쳤지만, 이 여인들은 교회를 충실히 지켜냈습니다. 그래서 그녀들 중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마지막 순간까지 그분께서 가신 길을 충실하게 함께 따라가는 것입니다.



- 김 여영엽 신부 | 그림 임의준 신부 -



예수님의 계산법

예수님=사랑
나+예수님=사랑
(예수님+나)+이웃=사랑

너무나도 간단한 사랑의 계산법
다들 잘 계산하고 계시나요??

“마음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그분을 사랑하는 것” 과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 이 모든 번제물과 희생 제물보다 낫습니다.” (마르 12:33)

